



“회사의 발전은 ‘오리 엉덩이 무게’에 달려 있다?!”

사) 한국오리협회장 김만섭”

남들이 모두 열이면 열 실패할 거라고 고개 저을 때 의외로 성공하는 경우가 있다. 자기 안에 스스로 할 수 있다는 “신념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. 땀 흘릴 각오를 한 사람에게만 하늘이 내 편이 되어 좋은 기회를 안겨 준다. 경험으로 보면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몇번의 기회는 분명히 온다. 아무리 기회가 여러 번 와도 꿈이 없으면 그 기회들은 쉽게 놓쳐 버리고 만다. 꿈을 갖되, 눈 발을 홀로 걷는 용기와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놓쳤던 기회도 언제든 다시 찾아 온다.

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운 형편에 놓인 영농회사가 있었다. 그 해 초부터 7월까지의 판매액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%포인트 넘게 떨어지자 사원들도 일할 의욕을 잃고 있었고 회사 전체의 분위기도 암울해졌다. 사장이 사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았지만 그 어느 것도 신통한 효과를 내지 못했고, 극심한 자금난으로 사장의 얼굴에는 하루 종일 근심이 떠나지 않았다.

8월 말, 이 회사는 국제적인 행사인 가공제품 박람회 참여하기로 했다. 사장은 이 박람회가 회생의 발판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사실 이 박람회 참여는 큰 기회인 동시에 큰 재정부담이 되기도 했다.

만약 여기에서 ‘구세주’가 되어줄 대형업체의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회사는 얼마 못가 파산 절차를 밟아야만 했다. 박람회 개막을 얼마 앞두고 사장은 전 사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고, 마지막으로 사원들을 격려했다.

■ 나의 의자 밑을 살펴봐라!

그런데 회의가 끝나갈 무렵, 사장이 자리에 앉은 사원들에게 모두 일어나 각자 의자 밑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했다. 영문도 모르고 허리를 숙여 의자 밑을 두리번거리던 사원들의 눈에, 반짝이는 동전 한 닢이 눈에 띄었다 직원들이 의아해 하고 있을

때, 사장이 말했다.

“모두 동전을 하나씩 주웠을 것입니다. 그 동전은 여러분의 것입니다.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?”

사원들은 아무도 사장의 뜻을 짐작하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수군거렸다.

■ 기회를 찾기 위해 눈을 반짝여라!

잠시 후 사장이 다시 엄숙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.

“여러분께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그 동전을 놓아둔 것입니다. 바로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서, 영원히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이 일어나 눈을 반짝이며 찾아야만 비로소 여러분 곁에 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.”

사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원들은 감동하여 우레와도 같은 박수를 쳤다.

그리고 그 덕분에 얼마 후 열린 가공제품 박람회에서, 이 영농회사는 다른 회사보다 훨씬 많은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. 회사의 거의 모든 사원이 자기 주변에 있는 기회를 발굴해 냈던 것이다.

“행동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.

성공이 제 발로 찾아와 당신 집의 문을 두드리는 일은 절대 없다“